

# 사회·경영 환경 변화와 경영학 교육의 전망

안 중 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경영학은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 발전하여 온 학문으로, 다른 학문과는 달리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복잡 다양해져가는 현대사회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과 조직의 현실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독특한 사명을 띠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학 교육은 짧은 기간에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사회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반면 이론에 치우쳐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한국의 경영학에 대한 연구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계는 그 동안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 및 교육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영학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특히 기업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

의 변화에 따라 경영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오늘날의 사회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외적·내적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경영학과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경영학 교육과 교육방법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환경변화

먼저 기술환경을 살펴보면 생산 및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한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장비들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한정된 지역 내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을 하나의 네

트위크로 결합하여 정보교환, 자원공유, 그리고 사용자 상호간의 통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출현하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전반과 기업에 너무나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무선통신, 컴퓨터, 자동식별과 추적기술, EDI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은 기업 경영상의 업무 효율화, 의사결정의 신속성·적합성 증가, 기업의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의 밀착화, 조직과 업무분담의 재정비, 국제화에의 대응, 경영전략의 혁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둘째로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그 추세가 국제화되고 집중화되며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각 국가간의 거리가 더욱 좁아졌고 각 국가간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지고 긴밀해졌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자본과 규모의 거대화에 바탕을 둔 집중화는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낳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비록 여전히 계속되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과 이에 대한 관심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인데, 이는 국가경제가 성숙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그 경제내에 중소기업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대기업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의 횡포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며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에 대해 그들 고유의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뛰어들어 이의 경제내의 역할이 커지리라 본다.

셋째로 정치·사회환경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이 환경의 변화방향은 분권화, 자율화, 민주화, 다원화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보이고 있다. 각 이익집단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 관철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각 부문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처리, 결정하는 자율화가 도래하고 있고 이는 결국 민주화, 다원화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 특히 서서히 두드러지고 있는 다원화현상은 가치관의 다양화, 권위의 상실, 개성의 중시를 야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격한 경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조류,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TQM, MBO, QC, 자동생산공정 등과 같은 경영 개선책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경영 혁신책들을 연구·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조직이 지니고 있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조직구조의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교육에 이와 같은 경영환경 및 이에 대처하려는 기업조직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영학과의 전망

### 1)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 필요

한국에서 경영학의 연구와 교육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영학이 도입되고 경영학과가 설치된 이후 경영학 교육과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은 사실이지만, 서구의 이론을 단지 습득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한국 경영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여건을 감안한 한국적 경영이론이 개발되지 않아 실제문제의 해결에 공헌도가 낮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이 그 동안의 우리 경영학계의 현실이었다.

한국적 경영이론이란 한국의 문화와 제반가치 속에서 경영조직의 여러 현상을 설명해 주고 한국의 상황에서 생성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을 말한다. 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이 과거의 독일과 미국의 경영이론 답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일본적 경영이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이 우리 한국의 경영학계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우리의 토착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해 경영학 이론의 수요자인 경영자와 학생들에게 이바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의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주장하는 고전경제학적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 개념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제도로써 수행해야 할 비경제적인 기업목적으로서, 부분적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전체 사회의 복지향상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윤리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에 대한 판단기준의 체계로 정의된다. 여기서 판단기준이란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에 기초할 때 기업윤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 주체적 자세로 기업경영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를 받아들여 동태적 의사결정과 사회참여를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띤 개념이다.

앞으로의 기업은 사회경제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을 조정해야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여야 하며, 국민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 3) 정보기술의 이해와 활용능력 배양

컴퓨터와 통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통합된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를 정보기술이라 말한다. 이것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기업과 조직 자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경영자에게 잠재적으로 강력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기업들에게 경쟁적 우위를 성공적으로 줄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사회환경은 정보화라는 방향으로 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기업 역시 정보기술을 조직에 신속히 도입하여 이를 경영목적에 이용하는 바, 즉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문에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정보기술을 상품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산업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혹은 정보시스템의 이해 없이는 오늘날의 기업조직을 제대로 이해, 관리,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이 중심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경영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시스템의 개발, 정보기술이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된 교육이 대학교과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대두와 이의 조직에의 활용이 기업사회의 지배적 현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교육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교육의 방향은 이러한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해시켜 그것이 조직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에 교육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국제적 시각의 배양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순탄하게 국제화의 첫단계인 수출활동을 잘 전개하여 왔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현지합작사업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제기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국 기업은 수출기업의 단계를 넘어

서 국제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는 세계적 시야에 입각한 세계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본다.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은 급속도로 팽창할 뿐더러 그 활동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인력, 자본, 기술, 용역의 국제적 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을 계획, 조직, 통제할 능력을 갖춘 경영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경영학 교육에서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킴으로써 현대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안목을 함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경영학 교육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정치, 법률, 사회, 문화, 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히 예측하고 이에 적극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제적 경영자를 배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5) 경영의사소통의 대두와 중요성

경영의사소통(management communication)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내의 상당수 대학이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즉, MBA과정의 고유한 부문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ACSB가 실시한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조사에 의하면 이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이의 중요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은 첫째가 작문과 화술이고, 둘째는 의사소통에 관한 전략이며, 셋째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러한 것은 현실의 경영상황에서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

적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야의 교육에 관해 한국에서는 무관심 내지 방치해 왔고, 특히 이를 가르칠 전문 교수인력도 부재했었다. 아울러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윗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순종의 미덕만을 배워야 했고, 한국의 교육풍토 역시 토의식 진행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주입식 교육 일변도로 흘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함으로써 타인을 설득시키는 연습을 할 기회를 전혀 줄 수 없었다.

그러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의견발표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특히 기업의 현실에서도 과거의 명령하달과 복종의 방식에서 차차 벗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부하에 대한 지시도 설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영학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의 교육적 필요성이 인식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를 교과목상에 두게 되리라 본다.

#### 6) 사례중심의 실질적 지식의 습득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사례연구는 기업체 또는 산업분야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의 단면을 잘라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례는 기업체에서 실제 일어난 경영활동을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예컨대 기업이 속한 산업체의 역사, 당시의 상황, 기업자체의 내부적 능력 및 한계점,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임무와 성격을 서술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사례는 실제의 경영상황을 설명해 주는 자료인데, 이 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경영자가 실제 경영에서 얻는 것과 흡사한 경험을 갖게 된다. 대개 사례는 교수들이 그들의 강의과정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주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겠다는 필요를 느낌으로써 그 개발이 시작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다.

경영활동은 복잡다기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 내에서 존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론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문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경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매개체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매개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례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현실감과 생동감이 넘치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아울러 분석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경영학 교육이 이론에만 치우쳐 현실과 유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개발과 아울러 이의 교육에의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경영학의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의 방향

#### 1) 정보기술의 교육에 대한 활용

현대의 교육은 기술적 발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대비한 적응능력의 계속적 교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어 가고 있다. 기술혁명에 수십 년 내에 우리가 배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교육과 수업의 방법에 적용하는 문제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서 각 PC들을 상호 연결하여 교실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망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활용 수업(CBI:computer based instruction)이 수행하는 주요한 교육적 기능은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을 직접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제공된 수업 내용의 학습결과 또는 학습진전 상황을 기록 유지하면서 수업활동을 적절하게 처방해 주고, 또한 학습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업의 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점 중의 하나는 집단수업을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최선의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화 수업에서는 교수이론이나 교육심리학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기법 및 수업처방의 원리를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다른 매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개별화 수업을 위한 컴퓨터 수업처방의 핵심적인 변인파 논리로서 학습량의 적정화, 학습계열의 최적화, 학습시간의 효율화, 피드백의 다양화, 학업성취 가능성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ICBI(intelligent computer based instruction)라는 새로운 교수 공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일부 학자들은 다양한 전문가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개발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 또는 수업개혁의 사회적 요구에 비

추어 볼 때 컴퓨터는 교수기능에서부터 사무관리 업무까지 상당한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수업은 완벽한 수업 및 집단 중심의 개별화 수업이 가능토록 하며, 학생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학습의욕을 강화시켜가며, 개별 학생의 정보처리 유형에 부합되는 수업처방을 전개하여 갈 수 있다.

## 2) 학문의 통합화

200여 년 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기술한 분업의 원칙과 전문화의 원칙은 지금까지 경영학 이론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져 왔으며, 지금도 경영학 교과서의 처음 부분에 소개되는 경영의 원칙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문제를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는 능력을 극단적으로 중시해온 반면, 조각조각으로 분해된 부분을 재구성하는 능력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통합보다는 분석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통합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하거나 수량화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연 과학에서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에 이르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또다시 스케일이 큰 사고 방식, 일반적인 학설, 조각난 부분의 재구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경영의 현장에서도 일고 있다. 분업화와 전문화의 원칙에 의한 양적 팽창으로 기업에는 복잡성과 비효율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나가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복잡한 조직을 통합 및 재조직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학 교육은 연구활동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학문적 특성 때문에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의 경향으로 흘렀다. 학문적 연구란 기술적 전문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전문적 또는 기술적 자질을 획득할 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경영학의 연구를 교과과정의 중점 사항으로 유지해 나아가야 하며, 학생들은 실제적인 경제적 현상과 이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정보산업사회는 전문분야별로 세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과목들은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맡기고, 보편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문제해결을 폭넓은 이론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하며, 상호 연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 3) 학부제 (division)의 지향 :

#### Mega-Department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영과 기술공학의 두 세계는 용어, 지식, 태도, 우선순위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닌 채 발전하여 왔다. 가령 경영자들은 기술자들에 대해서 전문용어나 사용하고 사업적 요구나 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불평하여 왔고, 반면에 공학도들은 경영자들이 기술적 측면에 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 하나만 고려한다고 불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업들이 생존하고 나아가 21세기의 변화된 기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학, 컴퓨터, 경영학의 복합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테크노 MBA와 같은 새로운 경영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직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사업결정(business decisions)과 기술적 선택(technical choice)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사업결정이 전문적 경영지식을 지닌 전문경영인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의사결정이라면, 기술적 선택이란 기술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 속에서 내리게 되는 선택활동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이 각기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령 시장의 흐름이나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 기회만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의 추이를 살피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사업적 기회를 인식하지 못한 많은 항공사, 보험, 은행, 소매업자들이 그들의 경쟁자들에게 크게 뒤떨어지게 된 사례는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따라서 급격한 경쟁환경 속에서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기술공학 사이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경영대학과 공과대학 나아가 다른 학문영역과의 상호협력에 의한 새로운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

안중호/서울대 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뉴욕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Fordham 대학과 Baltimore 대학 조교수. 동국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및 연구부처장을 맡고 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의료정보학회 이사,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 이사로 활동중이며, 저서로 『경영과 정보·통신기술』, 『경영전산처리』 외 다수가 있고, 역서로 『리엔지니어링-기업혁명』이 있다.